

A3003 재팬인덱스형

※ 공지 사항

1. 자산운용보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의거 자산운용회사가 작성하며, 투자자가 가입한 상품의 특기간(3개월)동안의 자산운용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여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재팬인덱스형의 자산운용회사인 ABL생명보험이 작성하여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인 국민은행의 확인을 받아 판매회사인 ABL생명보험을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됩니다. 다만 일괄 예탁된 펀드의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확인기간은 일괄 예탁된 날 이후 기간에 한합니다.
3. 자산은 미래에셋자산운용에 의하여 투자일임 운용됩니다.
4. 각종 보고서 확인: ABL생명보험 <http://www.abllife.co.kr/02-3787-7000>
 금융투자협회 <http://dis.kofia.or.kr>

1. 펀드의 개요

▶ 기본정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펀드명칭	재팬인덱스형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17514	고난도펀드 여부	해당하지 않음
펀드의 종류	변액보험 변액보통, 개방형, 추가형, 일반형	최초설정일	2009.10.12
운용기간	2025.04.01 ~ 2025.06.30	존속기간	추가형으로 별도의 존속기간 없음
자산운용회사	ABL생명보험	펀드재산보관회사	국민은행
판매회사	ABL생명보험	일반사무관리회사	하나펀드서비스
상품의 특징	일본의 상장주식의 주식인덱스 구성 종목 또는 주식형수익증권,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투자하여 낮은 비용으로 장기투자와 자산배분을 통한 해당지역의 대표 주식인덱스를 추종 운용하며, 포트폴리오 구성시에 종목선정 및 비중조정 등을 통한 일괄 획득을 추구합니다.		

▶ 재산 현황

아래 표를 통하여 당기말과 전기말 간의 자산총액, 부채총액, 순자산총액 및 기준가격의 추이를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백만원, %)

펀드명칭	항목	전기말	당기말	증감률
재팬인덱스형	자산 총액 (A)	1,528	1,464	-4.18
	부채 총액 (B)	1	1	5.82
	순자산총액 (C=A-B)	1,527	1,463	-4.19
	발행 수익증권 총 수 (D)	681	630	-7.57
	기준가격 (E=C/D × 1000)	2,241.01	2,322.94	3.66

※ 기준가격이란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을 입금(매입), 출금(환매)하는 경우 또는 분배금(상환금포함) 수령 시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펀드의 순자산총액을 발행된 수익증권 총액으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2. 운용경과 및 수익률현황

▶ 운용경과

2025년 2분기에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상호 관세에 시장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되었습니다. 관세 불확실성은 수출 기업 비중이 높고 대미, 대중 수출 의존도가 모두 높은 일본 증시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상호 관세 90일 유예로 불확실성이 정점을 지나고,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독립성 보장 및 연준의 채권 시장 개입 가능성 시사로 투심이 진정되면서 일본 증시는 수출주 중심으로 반등했습니다. 5월 중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이 지연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미중 관세가 90일 유예된 점은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되었습니다. 분기 말 이란과 이스라엘의 휴전 소식과 함께 파월 연준 의장이 7월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한 점, 다무라 나오키 일본은행 위원이 당장 금리 인상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 발표로 연하가 약세를 보이며 수출주 중심으로 상승했습니다.

※ 동 펀드는 재간접형펀드 내에서 환헤지를 하고 있으며, 25년 6월 30일 기준으로 목표환헤지비용 100% 대비 95.56%의 헤지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환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선물환 등을 이용하여 환위험 헤지를 추구하고 있지만 펀드에 설정해지, 추가변동, 환율 변동 및 펀드 규모에 따라 실제 환헤지비용은 목표환헤지비용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위험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투자환경 및 운용 계획

불확실한 대외 여건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게 유지되면서 상반기 일본 경제는 성장세가 둔화되었습니다. 상반기 물가 상승을 견인했던 식품 가격이 안정되면서 하반기 중 인플레이션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노동 수요가 공급을 상회하는 고용 여건이 이어지는 가운데 5%를 상회한 임금 인상률이 힘입어 하반기 실질 임금 증가율은 (+)로 전환할 전망이며, 이에 따라 경기 우려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 통화정책 측면에서 최근 우에다 총재는 경제가 일본은행의 전방에 부합할 경우 금리를 인상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으나, 당분간 국제 금리 금동과 미국의 관세 정책 같은 리스크에 우선적으로 대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7월에는 일본 참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그 전까지는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올 수 있지만 이후에는 정책 기대가 약해질 전망입니다.

▶ 기간(누적)수익률

(단위 : %)

구분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9개월	최근 12개월
재팬인덱스형	3.66	2.30	4.80	4.01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위 : %)

구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재팬인덱스형	4.01	16.96	31.42	37.20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추적오차

(단위 : %)

구분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12개월
재팬인덱스형	22.90	17.31	17.46

주) 추적오차란 일정기간 동안 인덱스펀드가 추종하는 특정 비교자산의 변동을 얼마나 충실히 따라갔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비교 자산 수익률 대비 해당 인덱스펀드의 일간 수익률 차이의 표준편차로 기재합니다. 추적오차의 수치가 적을수록 해당 기간 동안 인덱스펀드가 비교자산과 유사하게 움직였음을 의미합니다.

▶ 손익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손익 합계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전기	-	-	-	-19	-	-	-	-	-	1	-2	-21
당기	-	-	-	52	-	-	-	-	-	1	-2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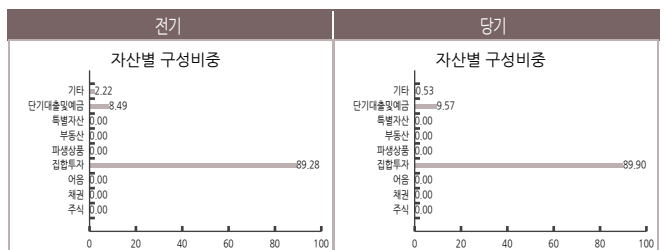
3. 자산현황

▶ 자산구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0	0	0	1,316	0	0	0	0	0	140	8	1,464
(1.00)	(0.00)	(0.00)	(0.00)	(89.90)	(0.00)	(0.00)	(0.00)	(0.00)	(0.00)	(9.57)	(0.53)	(100.00)
합 계	0	0	0	1,316	0	0	0	0	0	140	8	1,464

※ (): 구성비중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단위 : %)

구분	종목명	비중	구분	종목명	비중
1	집합투자증권 TIGER 일본TOPIX(합성H)	45.52	6		
2	집합투자증권 WON 종합채권(AA-이상)액티브	44.38	7		
3	단기상품 은대(국민은행)	9.57	8		
4			9		
5			10		

■ 각 자산별 보유종목 내역

▶ 집합투자증권

(단위 : 좌수, 백만원, %)

종목명	종류	설정원본	순자산금액	발행국가	통화	비중
TIGER 일본TOPIX(합성H)	수익증권	641	667	대한민국	KRW	45.52
WON 종합채권(AA-이상)액티브	수익증권	650	650	대한민국	KRW	44.38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 단기대출 및 예금

(단위 : 주, 백만원, %)

종류	금융기관	취득일자	금액	금리	만기일	발행국가	통화
예금	국민은행	2009-10-12	140	2.07	-	대한민국	KRW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4. 투자운용전문인력 현황

▶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

(단위 : 개, 백만원)

성명	직위	운용중인 펀드 현황		협회등록번호
		펀드개수	운용규모	
최미영	부서장	75	2,291,612	2119000125
김태현	차장	75	2,291,612	2119000109
윤유라	과장	75	2,291,612	2121001284

※ 성명이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것이 책임투자운용인력이며, '책임투자운용인력'이란 투자운용인력 중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있어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함.

※ 펀드의 투자운용인력 변경내역 등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의 수시공시 등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 <http://dis.kofia.or.kr>) 단, 현회 전자공시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와 본 자산운용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의 작성기준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기간	운용전문인력
2019.01.25 ~ 현재	최미영
2019.01.24 ~ 현재	김태현
2021.07.16 ~ 현재	윤유라

5. 비용 현황

▶ 업자별 보수 지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전기		당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자산운용사	0	-	0	-
판매회사	2	0.13	2	0.13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0	-	0	-
일반사무관리회사	0	-	0	-
보수합계	2	0.14	2	0.14
기타비용	0	-	0	-
매매 중개수수료	단순매매 중개수수료	0	0	0.01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0	0	-
	합계	0	0	0.01
증권거래세	0	-	0	-

※ 펀드의 순자산총액(기간평균) 대비 비율을 나타냅니다.

※ 기타비용이란 회계감사비용, 증권 등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펀드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매매, 중개수수료는 제외합니다.

※ 성과보수내역: 해당 없음

※ 발행분담금내역: 해당 없음

※ ESG관련내역: 해당 없음

▶ 총보수, 비용비율

(단위: 연환산, %)

	총보수·비용비율(A)	매매·중개수수료 비율(B)	합계(A+B)
전기	0.5584	0.0041	0.5625
당기	0.5584	0.0268	0.5852

※ 총보수 비용비율(Total Expense Ratio)이란 운용보수 등 펀드에서 부담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총 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냅니다.

※ 매매·중개수수료 비율이란 매매·중개수수료를 순자산 연평균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매매·중개수수료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6. 유동성 위험 등 주요 위험현황 및 관리방안

▶ 유동성위험 등 운용관련 주요 위험 현황

가. 운용전략 특성에 따른 잠재 위험요인 등

- 시장위험 및 개별증권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 주식, 채권 등 증권에 투자함으로써 개별증권의 가격 변동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예상하지 못한 정치·경제상황 등도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유동성 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증권은 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매매 연기나 거래비용 증가 등으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재간접 투자위험: 주요 투자대상인 재간접 펀드는 개별적인 운용전략과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용 전략에 따라 그 세부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 주요 위험 관리 방안

가. 펀드의 위험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방안 등

- 신탁약관 및 법규에 따라 투자한도 및 모든 법적 규제 등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관리 되고 있으며, 내부 투자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투자 전략의 점검, 성과 측정과 위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 재간접펀드 등 위험관리조치 내역 및 운용사의 통제권한과 수단 등

- 재간접펀드 운용사로부터 주기적으로 운용보고서(factsheet)를 제공 받고 있으며, 이는 운용 성과, 자산구성현황, 투자비용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주요 비상대응계획

- 재해 등의 위기상황 발생 시 리스크 관리, 투자 자산 모니터링 등 회사의 주요 기능이 계속 수행 될 수 있도록 사업연 속성계획(BCP)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재팬인덱스형' 의 경우 펀드의 운용규모의 법적 기준 소규모상태(50억원 미만)에 해당하여 운용 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단서에 의거하여 향후 불가피하게 임의해지를 통해 정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9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 223조 제3호 및 제4호)